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



심재승 교수 (돌트칼리지 교수)

칼빈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하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이오와 소재 돌트 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 교육, 기독교대학 교수 훈련과 공공신학에 관련하여 일하고 있다

이번 호 부터 북미개혁신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합니다.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소개는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문서의 한글 전문은 "<https://www.crcna.org>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편집자)

우리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앙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산다. 그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적인 사고와 행동의 일치가 습관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문화는 수백 년에 걸쳐 오면서 매우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삶의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삶에 구현되리라고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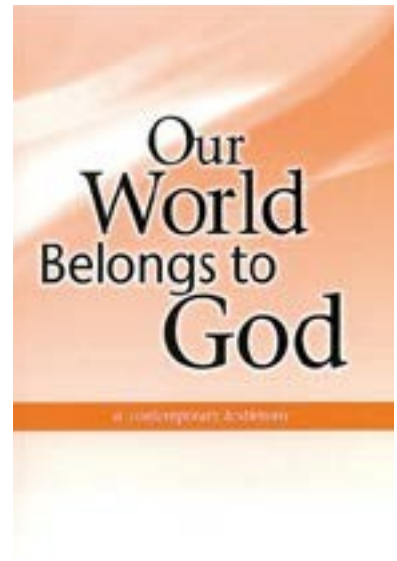
각하는 것은 매우 천진난만한 기대이다. 굳어진 몸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오래 굳어진 세속적인 생각이 기독교적으로 바뀌려면 지속적인 생각과 행동의 훈련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하여 신앙인의 삶을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 구원의 방법, 축복받는 통로쯤으로 치부되고, 복음 자체가 요구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건강한 삶, 구속이 추구하는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스스로 포기되거나 축소되었다. 필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에 관련하여 두 가지 이슈가 떠올랐다. 하나는 세속적인 문화가 일관적이고 철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일관적인가 하는 이슈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삶에 그대로 구현해 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재를 읽고 이러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지금부터 연재할 문서는 북미개혁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에서 출판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Our World Belongs to God).”이다. 이 교단에는 16세기부터 작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세 개의 표준신앙고백인 벨직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돌트신경이 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문서는 1986년도에 이 교단에서 채택하여 출판하였고, 2008년도에 수정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현대 신앙문서 (Our World Belongs to God: Contemporary Testimony)”라고 부르는 신앙지침서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표준신앙고백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고백을 가지고, 빠르게 세속적으로 기술적으로 변화하며 개인주의화하는 현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해설한 신앙의 지침서이다. 이 문서는 “신앙고백이 아닌, 신앙을 표현하는 현대의 역동적인 문서로 활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어서 현재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용되고 있다.¹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교회 문서치고는 매우 평상언어로 쓰였다. 그래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성경해석→세계관과 영성의 형성→삶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양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혁주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읽어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세계관”이나 “영성”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문서 전체에 녹아 스며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한 개념들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풀어나가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문 (단락 1-6), 창조 (7-12), 타락 (13-17), 구속 (18-22), 그리스도 (23-27), 성령 (28-30), 계시 (31-33),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34-40),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 (41-54), 새 창조 (55-58). “창조”로부터 “성령”에 이르기까지의 30개 단락은 성경의 구속역사를 요약한 것으로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어찌 보면 이 문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34-40)”과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41-54 단락)” 일 수 있다. 전자는 현대 문화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의미를 해설하고, 후자는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해설한다. 그러나 결론적

인 삶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성경이해로부터 신앙고백, 그리고 세계관과 영성의 형성에 이르는 기독교적인 사고의 과정이다.

서문 (Preamble)

1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한다.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¹

2

태초부터 우리 시대의 모든 위기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의 다스리심을 시작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창조세계는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²

3

절망과 함께 완고한 교만함이 지금도 세상에 가득차 있다. 어떤 이들은 실패함으로 부서지거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망가져서 삶과 소망과 하나님을 포기하였다. 다른 이들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인간적인 승리를 여전히 갈망하면서 그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투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그 풍조를 분별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풍조와 싸우고 있다. ³

4

우리의 세상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선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계절의 변화와 햇빛과 비를 보내시면서 모든 창조물을 지탱하시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구세주를 약속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만드신 목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⁴

5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창조세계의 첫 열매로 다시 살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신다. ⁵

6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기뻐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한 삶에 헌신한다. 언약의 파트너로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회복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린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우리는 확신한다. 현재의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을. 오소서, 주 예수여! 우리 세상은 당신의 것이옵니다. ⁶

서문 해설

서문은 이 문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흐름을 제시한다. 시작부터 두드러지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다. 그러한 고백이 단락 2와 5에 삼위일체적인 양식을 따라서 쓰였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왕이시며,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신다. 단락 5에서는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의 섭리,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하심,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심을 강조하며 온 세상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고백한다. 삼위일체적인 구속사의 이해는 의식적으로 성경 전체를 조망하려고 노력한다. 그 결과로 선한 창조→죄로 인한 세상 전체의 망가짐→세상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그리고 창조원리를 유지하고 새롭게 하심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구속 안에 인간의 구속이 있다. 인간의 구원의 이야기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광범위한 구속사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결국 인간중심적인 구원의 요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광범위한 구속의 범위 안에서 이 문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양식을 따라서, 개인적인 터치를 포함한다. 죄의 결과로 삶에서 경험하는 절망, 실패, 고통, 그리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와 싸우고 있다” (단락 3).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지탱하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만드신 목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단락 4).

창조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구속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성령을 부어주신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 “복음을 선포하신다(단락 5).”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구원의 개인적인 요소이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단락 23-27)”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거기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과를 지拂하셨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한다(단락 26). 그것이 성경 구속사에서 중심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 위치와 의미를 창조로 시작하여 새 창조에 이르는 전체 구속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서문의 마지막인 단락 6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으로 새로워진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우선 구속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파트너”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대사이다.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자유를 회복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린다.” 요구되는 “성결한 삶”과 “순종의 삶”은 교회적인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고 삶 전체로 연장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는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범위를 제시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다(단락 1-4). 이것이 복음의 공공성이며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거듭난 새

생명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삶에서 살 책임을 강조한다. 복음이 부여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속박을 의미하면서 또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삶의 양식도 의미한다. “자유를 회복한 우리는…을 위하여…을 드린다.”는 문장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자유는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포기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섬기기 위한 자유로운 자유의 포기, 그 가장 아름다운 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유를 자유롭게 포기하는 헌신의 삶, 복음의 공공적인 책임을 사는 삶,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곧 예배이다”라는 가르침에 잘 요약되어 있다.

시대를 분별함에 대해서 살펴보자.

5. 창세기 3장, 9:8-16, 시편 104편, 특별히 30절, 마태복음 5:45, 그리고 사도행전 14:17을 살펴보자. 구세주를 약속하심에 대하여 창세기 3:15, 이사야서 7:14, 11:1-5, 42:1-7, 53장, 그리고 미가서 5:2을 보라.
6.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호세아 11장, 특별히 10-11절을 살펴보자.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3:1-21, 사도행전 2:36-39, 로마서 10:7-11, 그리고 에베소서 2:1-10을 보라. “첫열매”에 관하여 레위기 23:9-14와 야고보서 1:18을 보라.
7. 이 단락의 내용을 위해서 마태복음 5:17-20, 48, 요한복음 1:1-5, 9-13, 3:19-21, 로마서 12:1-2, 갈라디아서 5:1, 13-25, 데살로니가전서 4:16-5:11, 베드로후서 3장, 요한일서 2:7-11, 그리고 요한계시록 22:20을 살펴보자. 

1. 이 부분은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인용했다.

2.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되심을 시편 24:1 (고린도 전서 10:26에서 인용함), 욥기 41:11, 그리고 신명기 10:14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인류에게 주신 “우리의 세상”은 또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창조기사의 주제 중의 하나이다.

3.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시편 89, 117, 145편, 로마서 8:31-39, 히브리서 10:23을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54-57, 빌립보서 2:9-11, 요한계시록 1:13-18을 보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창세기 1장과 로마서 8장을 보라.

4. 시편 2편은 반역적인 인류의 풍조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마서 1-3장을 살펴보자. 에베소서 6:10-17은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는 성도들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다. 요한일서 4장에서